

극장홈페이지 제작 보고서

전자물리학과 201800496 권은아

1. 서론

현재 배우고 있는 웹프로그래밍 강의의 첫번째 과제로 극장 홈페이지 제작을 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실습을 통하여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던 것에 반해 이렇게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으니, 신경 쓸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실습을 할 때도 우리가 배웠던 수업 내용들이 이렇게 구현이 된다는 것이 신기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보니 직접 확인하고 고안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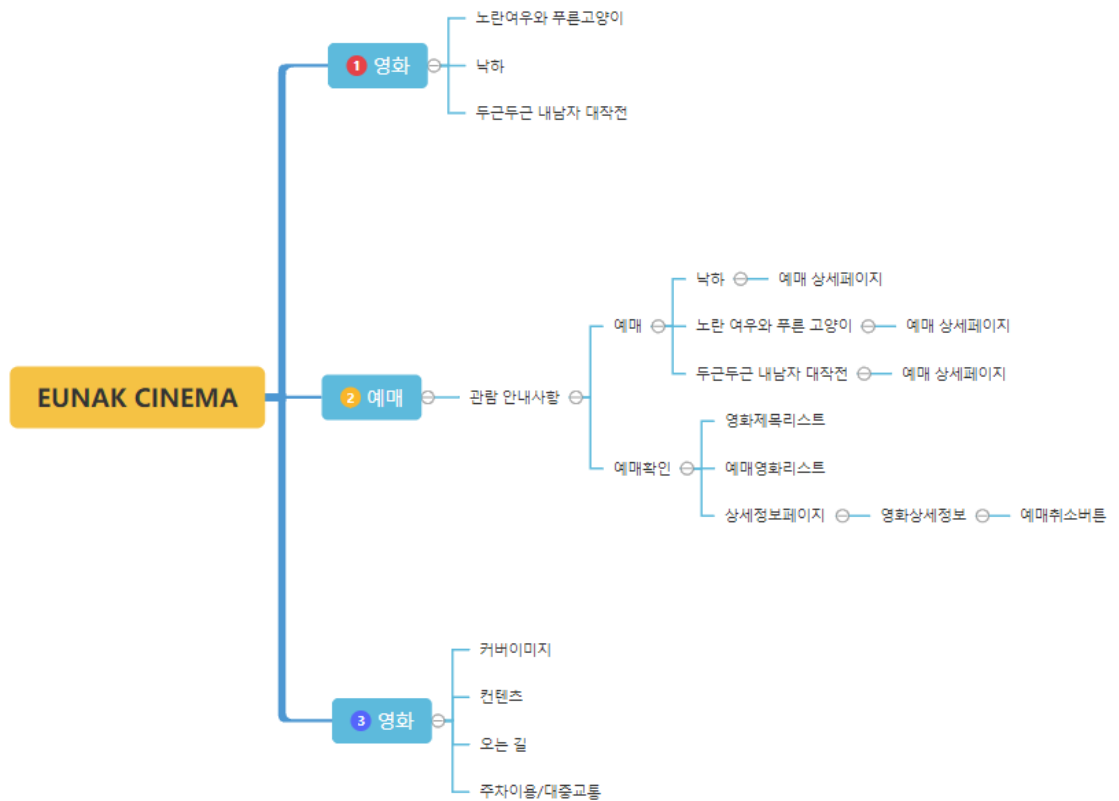
2. 본론

1. 홈페이지 기획의도

은아케이스네마의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영화관이라고 설정을 했다. 어릴 적 아토피와 같은 이유로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았기도 했고, 한적한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주변에서 많이 봐왔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노키즈존 등의 이유로 어린이들이 설 곳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것은 양육자인 부모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어릴 적에 지냈던 추억은 평생 기억에 남기 때문에 시네마안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최소화되기를 바랐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홈페이지의 색상을 채도가 낮은 빨강, 노랑, 파랑으로 알록달록하게 테마를 정했다. 그럼에도 마냥 어려보이는 홈페이지는 성인들에게는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므로, 헤더는 검은색과 회색계열로 깔끔하게 제작했다.

2. 전체 페이지 설계



기본적으로 시골에 있는 극장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조부모 역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카테고리를 최대한 크게 영화, 예매, 영화관으로 나누었다. 또한 html문서에 너무 많은 것이 담기지 않고, 최대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페이지 간의 링크를 배치하려 노력했다.

3. 상세 페이지 설계

A. Main.html

<head>에 카테고리로 ‘영화’, ‘예매’, ‘영화관’을 나눠 movie.html, book.html, theater.html에 링크를 걸어두었다. 이는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다.

<body>에는 고풍스러운 저택과 같은 극장 사진을 넣었으며, 다른 사진을 전부 안쪽으로 배치한 것과 다르게 유일하게 메인에서만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사진을 배치하여 main홈페이지라는 특징을 따로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계획표와 이어지는 11월/12월 상영작을 배치하여

계획표와 함께 바로바로 포스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B. Movie.html

창작 포스터 3개를 화면 비율 30%, 50%, 70%에 위치하여 간격을 맞춰 배치했고, 그 아래로 제목과 평론가/관객의 평점을 매겨 두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각 영화에 해당하는 상세정보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 두었다. 상세정보 페이지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포스터 위로 마우스를 hovering 할 경우 가장 특징이 되는 대사와 함께 요약된 줄거리가 하얀 글씨로 떠오르게 해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C. Book.html

이 화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관람료와 등급별 관람기준이다. 어린 아이를 타겟으로 한 극장인 만큼 가능하면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게 느껴지면서도 채도가 높지 않아 눈이 편안한 색 세 가지를 골라 배치했다. 여기서 고른 색은 이후 모든 부분에 들어가 홈페이지의 통일성을 강화한다.

예매 안내가 끝나면 화면 비율 40%, 60%에 위치시킨 버튼 2개가 보인다. 각각 예매 페이지와 예매확인 페이지로 분리되어 링크되어있으며, 여기서도 안내에서 사용된 색을 똑같이 가져와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내려고 했다.

D. 예매하기.html

Movie.html와 같이 창작 포스터와 제목, 그리고 평점을 배치한 후 각 영화 별로 예매가 가능한 페이지로 링크 되어있는 버튼을 배치했다.

E. 예매확인하기.html

역시 다른 곳에서도 사용한 노란색으로 ‘영화 제목’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두었으며 그 아래로 예매한 영화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홈페이지의 이미지형 버튼이 아닌 다른 버튼은 전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게 설계했다. 또한, 기본 파란색과 hovering되었을 때의 빨간색 역시도 같은 색을 설정했다.

아래의 버튼은 각각 첫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의 영화와 연결되어있으며,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영화 제목, 예매 일자와 시간, 인원수, 좌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F. Theater.html

이곳에서는 영화관의 기획 의도를 조금 더 드러내려고 했다. 단순한 극장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이 모여 있어, 대여와 독서 그리고 중고구 매까지 가능한 도서관,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콘셉트로 가볍게 ‘어린이들을 위한’ 극장이 아닌 정말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려 노력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은 main.html에 배치해둔 계획표와도 연관 되어있어 모든 홈페이지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연출했다.

또한 <오시는 길>을 통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는 아니지만, 실제의 영화관처럼 여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극장 소개 페이지가 되었다.

3. 결론

웹프로그래밍의 모든 실습은 다들 동떨어져 있어 연속적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고안, 제작하면서 어떻게 기획을 해야 사용자가 더 편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UI를 편안하게 느낄지 고민할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실제로 개발자로서 취업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저에게 큰 무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졸업 후에도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고안, 제작하는 과정인 이번 과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